

시사논술 개념사전

세계유산

전 세계가 함께 보호해야 할 인류의 재산

유네스코(UNESCO)가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협약'에 따라 지정한 유·무형의 문화재.

목차

- 세계유산의 필요성과 종류 - 인류가 지켜야 해
- 대표적인 세계유산 - 세계적으로 유명해
-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
- 생각해보자



내 펜팔 친구 샬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편지를 보내왔어. “안녕~! 이번에 한국의 ‘조선왕릉’이 유네스코(UNESCO) ¹⁾ 세계유산에 등 록된 걸 축하해.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많은 것 같아. 언젠가 꼭 보러 가고 싶어.” 나는 그만 깜짝 놀랐어. 나야 물론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었지만 캐나다에 사는 친구까지 알고 있을 줄이야! 어서 답장을 써야겠어. “고마워, 샬리! 언제든지 놀러와~ 내가 꼭 구경시켜 줄게~”

세계유산의 필요성과 종류 - 인류가 지켜야 해

세계의 중요한 문화재를 보존해야 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물려받은 많은 문화유산이 파괴되거나 사라지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는 인류가 꼭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을 선정해서 특별히 관리해 오고 있어.

유네스코



NAVER

유네스코가 인류의 소중한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1978년에 만든 것으로, 로고의 가운데 사각형은 인간을 만든 형상이며, 원은 자연을 의미해. 사각형과 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밀접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거야.

세계유산의 종류

세계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어. 문화유산에는 동굴·건축물·조각·그림 등과 같은 것이 해당되지. 자연유산은 과학적이거나 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연, 그리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말해. 복합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같이 갖고 있는 유산을 말해. 무형유산은 인간의 창조적 재능이 담겨 있는 유산 중에서 선정된 거야. 예를 들어서 언어, **문학**, 음악, 춤, 놀이, **신화**, 의식, 습관, 공예, 건축 등 예술 형태로 표현돼. 기록유산에는 기록이 담긴 자료, 비기록 자료, 전통적인 움직임과 현재의 영상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이 포함돼.

아울북 소식

0000년 00월 00일 아울북신문

제주 세계자연유산지구, 외국인 방문 '고공행진'

제주 세계자연유산지구를 찾는 외국인이 꾸준히 늘고 있다. 00일 제주도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에 따르면 2009년 9월 말까지 세계자연유산지구 탐방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라산과 만장굴과 성산일출봉을 찾은 외국인은 모두 34만 3,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 8,000여 명에 비해 57.1%나 급증했다.

NAVER

더 알아보기 지금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① 이집트 기자에 있는 쿠푸왕의 피라미드 ② 메소포타미아 바빌론의 공중정원 ③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④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⑤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능묘 ⑥ 로도스의 크로이소스 대거상 ⑦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파로스 등대가 있어.

그런데 이 7가지 중에 지금은 이집트 피라미드밖에 남아 있지 않아. 만약 모두 남아 있다면 인류는 굉장한 문화 유산을 물려받았을 텐데. 우리 후손들은 이런 아쉬움을 갖지 않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보호해야겠지?

대표적인 세계유산 - 세계적으로 유명해

유네스코는 정기적으로 세계유산 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세계유산들을 지정하고 있어. 많은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재를 세계유산에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세계유산에 등록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보존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거든. 2009년 7월 기준으로 세계문화유산은 148개 나라의 890건이 등록되어 있어.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세계문화유산)

앙코르는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지역의 이름이고 ‘와트’는 크메르어로 ‘사원’이란 뜻이야. 즉 앙코르 와트는 사원의 수도란 뜻이지. 인간이 만들었다고 믿기 힘들 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약 400km²의 정글 속에 펼쳐져 있어. 앙코르 와트는 앤젤리나 졸리의 유명한 영화 ‘툼레이더’의 배경이 되기도 했어.



브라질의 이구아수 국립공원(세계자연유산)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인 이구아수 폭포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경계에 있어. 이구아수 폭포만큼이나 유명한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브라질엔 ‘나이아가라를 먼저 보고 이구아수를 나중에 보라’는 농담이 있어. 이구아수 폭포를 보고 난 다음엔 나이아가라가 시시하게 느껴질 거라는 거지. 물론 농담이지만 그만큼 자신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 아니겠어

페루의 마추피추 역사 보호지구(세계복합유산)

마추피추는 잉카문명이 남긴 문화유산인데, 안데스 산맥의 고도 2,430m에 위치해 있어. 마추피추는 공중도시라고도 불리는데, 아래쪽에서 보면 절벽과 밀림에 가려서 전혀 볼 수 없고 오직 공중에서만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야. 산의 정상과 가파르고 좁은 경사면에 큰 돌들을 쌓아 건축물을 세웠는데, 태양의 신전, 계단식 논, 배수시설, 주거지, 해시계, 피라미드 등의 유적이 남아 있어.



더 알아보기 잉카인들은 어디로 갔을까?

마추피추는 약 2,000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견된 지는 100년이 채 되지 않았어. 그래서 마추피추를 ‘잃어버린 도시’라고도 부르지. 마추피추를 남긴 잉카문명은 세계에서 가장 신비한 문명 중의 하나야. 그냥 걸어 올라가기도 어려운 높이에 어떻게 이런 큰 돌들을 옮겨서 정교한 건축물들을 지었을까? 또 이렇게 훌륭한 도시를 지은 문명이 어떻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걸까? 한 이야기로는 스페인군이 쳐들어 왔는데, 그 스페인군이 지니고 있던 병균이 옮겨서 죽었다고도 해. 왜냐하면 그 당시 잉카인들에게는 없었던 병균이라 예방하지 못했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

불국사·석굴암

불국사는 불교 교리를 담은 매우 독특한 건축미를 지니고 있어. 그리고 석굴암은 종교, 건축, 수학, 예술이 함께 조화를 이룬 훌륭한 유산이지.



종묘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후의 신위 ²⁾를 모신 곳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신전이라고 해. 정면이 길고 수평적인 세계적으로 희귀한 건축 유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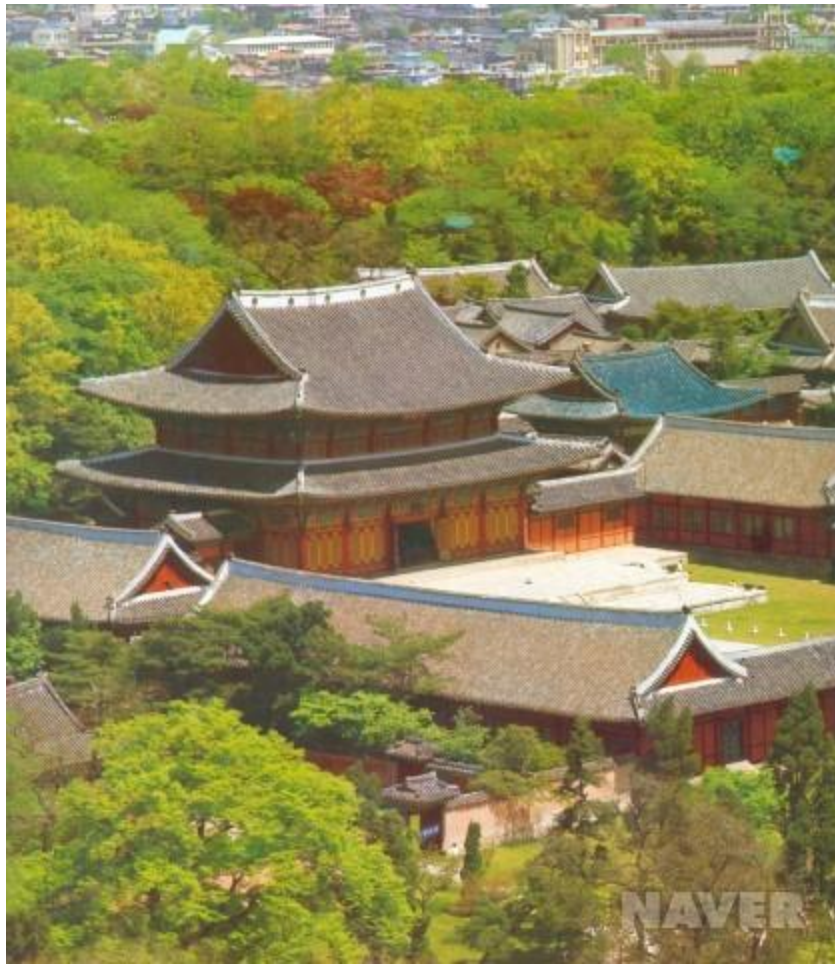


해인사 장경판전

국보 32호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대장경이 녹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환경을 이용한 굉장히 과학적인 건축물이야.

창덕궁

창덕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타기도 했지만 다행히 건물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어. 궁전과 건축물들이 주변 [자연환경](#)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



수원 화성

조선시대 **정조** 임금이 지은 수원 화성은 동서양의 군사시설 이론을 잘 조화시킨 성인데, 각기 모양과 디자인이 다른 다양한 성을 지니고 있어.

경주역사유적지구

신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다양한 유산이 있는 종합역사지구야. 남산지구, 월성지구, 대능원지구, **황룡사**지구, 산성지구로 구분되어 있어.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고인돌이 형성된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야. 선사시대의 사회구조와 정치체제, 그리고 문화를 나타내지.

조선 왕릉

풍수지리 ³⁾ 사상과 조선의 **유교**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이지. 조선시대부터 오늘날까지 600년 이상 제례 의식 ⁴⁾을 거행하고 있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우리나라의 세계자연유산 1호야. 거문오름 용암동굴과 다른 두 개의 유산지역의 화산 특징들이 세계 화산학 연구에 귀중한 기여를 하고 있어.

읽을 거리 **북한에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있을까?**

현재의 중국 북동부와 북한 지역에 있는 **고구려** 왕들의 묘가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고구려 고분군(The Complex of the Koguryo Tombs)이라고 해. 1,300년을 넘긴 생생한 무덤 내부 벽화의 아름다움과 뛰어난 건축 기술 등을 인정받아서 2004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어. 우리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 대왕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태왕릉과 그 아들 **장수왕**의 왕릉으로 추정되는 **장군총**도 바로 고구려 고분군에 있지.

생각해보자

세계유산으로 추천하고 싶은 우리나라 유산에는 무엇이 있으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보자.



선생님

해마다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세계유산을 선정하여 온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많은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가까운 일본(문화유산 11개, 자연유산 3개, 2009년 기준)이나 중국(문화유산 26개, 자연유산 7개, 2009년 기준)에 비하면 아직 적지. 이는 아직까지 우리의 유산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우리의 유산을 잘 관리하고 홍보해서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도록 노력해야 해. 그럼, **세계 유산**으로 추천하고 싶은 우리나라의 유산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추천하는 이유와 함께 말해 볼까?



개념이

저는 울주군에 있는 암각화(바위에 새긴 그림)를 추천하고 싶어요. 암각화는 경북 울주군 일대 20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려진 시기가 달라요. 그중 가장 유명한 반구대 암각화에는 창에 맞은 고래, 새끼를 업은 고래, 배가 불룩한 멧돼지, 울타리 안의 호랑이, 주술사로 보이는 사람의 모습 등이 새겨져 있어요. 이 대곡리 암각화에서 대곡천을 따라 위쪽으로 올라가면 천전리 암각화가 나와요. 천전리 암각화에는 반구대 암각화와 달리 단순화된 동물과 사람의 모습, 그리고 기하학 문양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고, **법흥왕**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글자도 새겨져 있어요. 이를 보면 울주군 암각화는 신석기 말에서 신라시대까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시대에 걸쳐 꾸준히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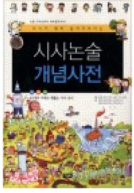


논술이

저도 울주군 암각화는 꼭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울주군 암각화는 아주 오래 전 이 땅에 살던 우리 조상들의 사냥 생활과 제사 풍습 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기 때문이에요. 암각화는 시베리아나 **몽골** 등지에서도 발견되고 있는데, 울주군의 암각화처럼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은 없다고 해요. 더욱이 울주군 암각화에는 동물들의 모습이나 사람들이 사냥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고, 사물의 특징도 잘 잡아내고 있어서 인류 최초의 예술로 인정받는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벽화나 스페인의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각주

- 1) 유네스코(UNESCO) 각국의 교육·과학·문화의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는 **국제기구**.
- 2) 신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 죽은 사람의 사진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
- 3) 풍수지리 지형이나 방위를 인간의 길흉화복(종교 나쁨, 재앙과 복)과 연결시켜, 죽은 사람을 묻거나 집을 짓는 데 알맞은 장소를 구하는 이론.

4) 제례의식 제사를 지내는 절차와 의식.**출처****시사논술 개념사전** 2010. 5. 14. 책보러가기

시사상식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자! 뉴스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시사논술 개념사전』. 초·중·등 학생이 꼭 알아야 할 시사용어 60개를 사회, 경제, 과학의 분야로 나누어 한 권에 담은 책이다. 초·중·등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자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작권자가 제공한 콘텐츠는 네이버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